퀀틴전시 플랜

역시 예상을 뛰어넘은 엔비디아, AI 버블우려 불식

FICC 리서치부

정해창 / Strategist Jr.
haechang.chung@daishin.com

이경민 / Strategist
kyoungmin.lee@daishin.com

[Key Point] 빅 이벤트 확인 이후 불확실성 완화

- 엔비디아 실적발표 이후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, 나스닥 선물지수는 +1.8% 상승
- FOMC 의사록도 공개. 연준 내 다수 위원들의 12월 추가 금리인하 신중론 확인
-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취소, 11월 지표도 12월 16일로 연기되며 금리인하 기대 후퇴. 12월 금리인하 확률은 32.8%로 하락, 동결 전망 우세
- 엔비디아 실적발표 전 금리인하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악재에도 미국 3대지수는 상승을 유지
- 11월 나스닥은 최대 −7%, 엔비디아 −15%, 팔란티어 −20% 등 기술주들의 조정. Fear&Greed Index는 11로 극도의 공포구간에 도달. 불확실성 이벤트의 확인만으로도 불확실성 해소로 반영.

[Issue 1] 엔비디아, 블랙웰 칩 수요가 "차트를 뚫고 나갈 정도"

- 엔비디아는 실적발표를 통해 AI버블 논란을 일축.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. 매출 가이던스 또한 시장 기대치(616억 달러)를 크게 웃도는 650억 달러를 제시
- 특히, 데이터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66% 급증했으며, 클라우드 GPU는 이미 매진 상태. 젠슨 황 CEO는 블랙웰 칩 수요가 "차트를 뚫고 나갈 정도"라며 강력한 수요를 강조
- 반도체&데이터센터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. 글로벌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, 대형주를 중심으로 업종 전반 매수세 유입
- **반도체:** 삼성전자(+4.3%), SK하이닉스(+1.6%), 한미반도체(+2.3%), HPSP(+3.8%) 등
- **전력기기/원자력**: 두산에너빌리티(+4.4%), LS ELECTRIC(+6.5%), 대한전선(+4.8%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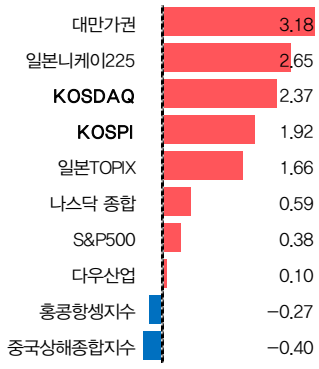
[Issue 2] 중일갈등 수혜기대 / 두나무 / 아이온2

- 중일 외교 갈등이 지속.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에 이어 수산물/화장품 등 수입금지 보복조치 검토
  여행/항공: 롯데관광개발(+15.0%), 파라다이스(+13.7%), GS피앤엘(+12.8%), 서부T&D(+11.2%) 등
  화장품: 에이피알(+5.6%), 아모레퍼시픽(+5.6%), LG생활건강(+3.7%), 코스맥스(+3.5%) 등
- NAVER(+3.4%), 26일 이사회에서 두나무 합병 및 교환비율 협의 예정
- **두나무 지분 보유:** 우리기술투자(+11.4%), 한화투자증권(+7.0%) 등
- **엔씨소프트(−2.5%):** 아이온2 신작 공개 이후 실망감에 2거래일 연속 하락
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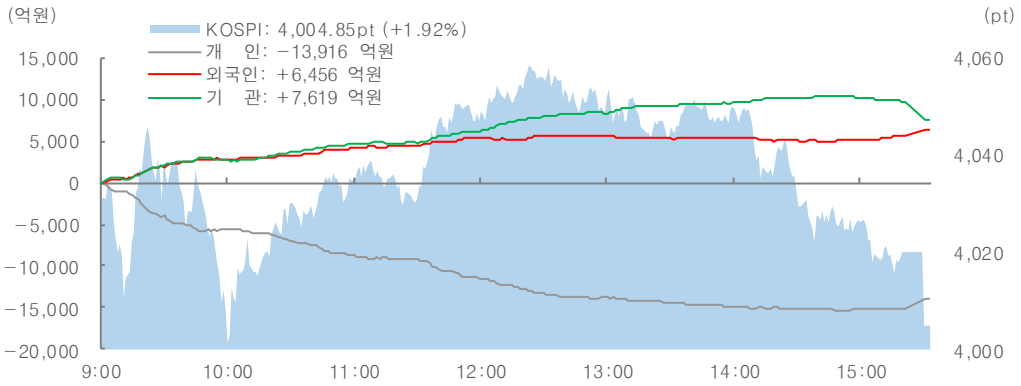
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**퀀트**, **전**략, **시**황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.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,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

글로벌 증시 수익률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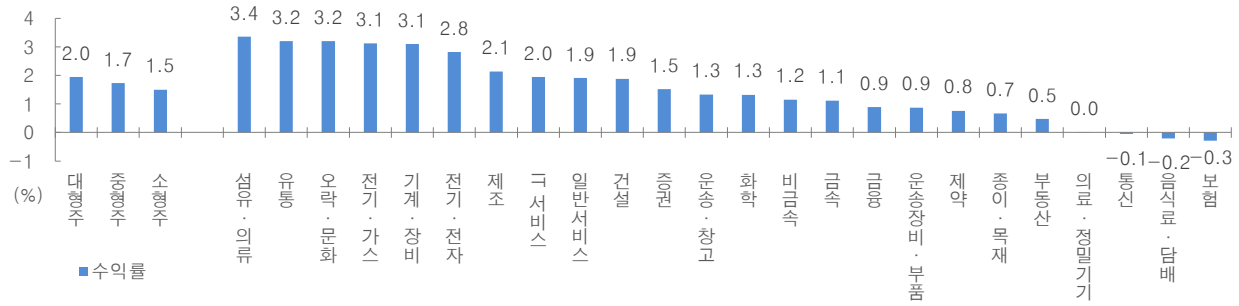
주: 아시아 증시 마감 전 지수

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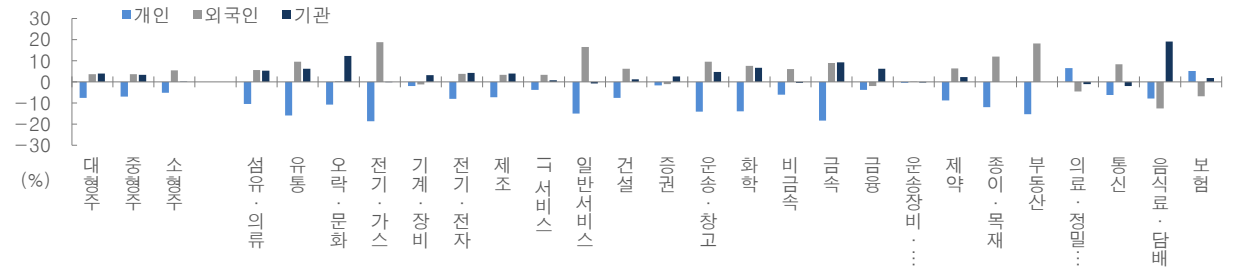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업종별 수익률



업종별 순매수 상대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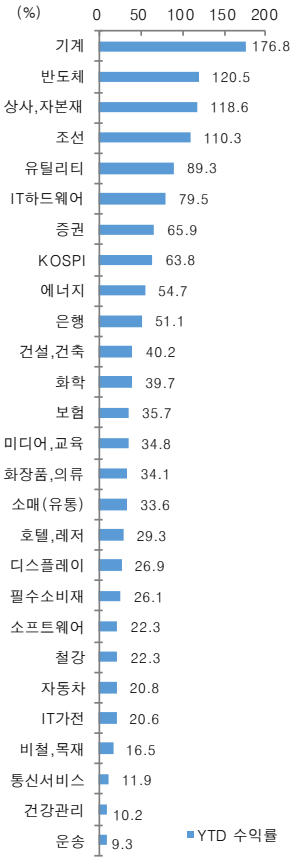
자료: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* 순매수 상대강도 = 주체별 순매수금액 / 20 일평균거래대금

KOSPI, 업종별 수익률 추이

주요 지수	전일종가 (p)	1W	1M	3M	6M	12M	YTD
KOSPI	**3,930**	**−5.3**	**4.8**	**24.7**	**50.9**	**59.0**	**63.8**
에너지	5,044	−5.3	13.7	27.4	47.8	52.0	54.7
화학	4,829	−4.1	7.7	23.7	52.9	24.8	39.7
비철,목재	6,370	−0.1	−8.0	21.7	33.7	14.6	16.5
철강	2,187	−2.4	3.6	1.0	22.4	8.4	22.3
건설,건축	1,441	−2.5	−1.5	−3.9	15.3	36.5	40.2
기계	9,127	−5.9	4.7	31.5	94.3	156.6	176.8
조선	9,219	−0.6	6.2	20.8	49.4	131.5	110.3
상사,자본재	3,173	−6.8	4.3	26.6	44.2	100.8	118.6
운송	1,598	−4.8	−4.4	−13.2	−4.6	5.7	9.3
자동차	10,507	−3.5	4.0	11.6	27.7	20.4	20.8
화장품,의류	4,934	2.2	−0.3	−3.6	9.9	35.5	34.1
호텔,레저	2,157	2.9	−1.5	−3.8	16.3	23.7	29.3
미디어,교육	724	−1.4	5.0	−1.7	8.1	25.8	34.8
소매(유통)	2,019	1.1	10.3	10.1	12.8	29.7	33.6
필수소비재	7,058	2.3	3.2	4.0	11.4	27.2	26.1
건강관리	9,628	−0.6	7.9	11.6	21.1	18.1	10.2
은행	2,609	−5.7	5.2	8.4	34.5	40.5	51.1
증권	2,187	−9.3	2.0	10.2	37.4	62.0	65.9
보험	9,762	−10.8	0.0	6.0	37.2	28.5	35.7
소프트웨어	7,099	−7.0	−2.2	−1.7	23.9	23.0	22.3
IT하드웨어	1,284	−2.4	15.5	44.7	81.8	89.1	79.5
반도체	17,236	−7.5	6.5	61.3	104.9	113.2	120.5
IT가전	2,044	−7.6	5.6	21.4	52.8	9.1	20.6
디스플레이	737	−8.3	−13.5	4.4	33.2	17.3	26.9
통신서비스	363	−0.3	−0.1	−5.7	3.1	14.3	11.9
유틸리티	1,370	−2.0	7.0	18.0	49.9	58.9	89.3

기준일: 2025.11.19. / 주: Top 5, Bottom 5
자료: FnGuid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KOSPI, 업종별 YTD 수익률

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 정해창, 이경민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